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대상)>

도서명	동물농장
저자	조지 오웰
제목	공포로부터의 자유
고등학교 3학년 시절, 동물농장을 주제로 학교에서 개최한 독서모임에 참여한 적이 있다. 그때 주된 토론 주제는 단연 전체주의와 관련된 정치적 견해들이었다. 당시의 나는 책 속에서 토론할 거리를 찾기 위해 혈안이였다. 그리고 전체주의는 늘 독재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가, 반란을 일으킨 동물들은 그 전보다 행복해졌다고 할 수 있는가, 나폴레옹이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와 같은 질문들을 나누었다. 물론 책을 읽은 후에는 전체주의와, 그와 관련된 역사들에 대해 바라볼 수 있는 조금 더 깊은 시각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이번에 내가 동물농장을 다시 읽은 이유는 조금 달랐다. 물론 감상문을 쓰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 내가 책을 든 이유는 바로 최근 미얀마에서 일어난 일 때문이었다. 미얀마의 사건을 바라보며, 내가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을 다시금 떠올린 이유는 무엇일까? 독후감을 통해 스스로 그 이유를 찾아내고, 이전과는 조금 다른 관점을 통해 동물농장을 바라보려고 한다. 이전에는 동물농장에서 일어난 동물들의 반란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젠 작품을 통해 현실 세계로 눈을 돌리고자 한다. 조지 오웰은 현재 미얀마라 일컫는, 버마에서 경찰관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그의 첫 작품 또한 버마 시절이라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었다. 그는 미얀마에서 근무했던 제국주의 경찰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집필했다. 책 속에는 제국주의를 증오했지만 그곳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하는 이야기를 통해, 문명과 정치의 비극에 대해 전달하고자 했다. 아마 이때부터 조지 오웰의 정치적 글쓰기가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나 또한 미얀마에 간 적이 있다. 내게 있어서는 첫 해외 여행이었는데, 미얀마라는 조금 특별한 여행지를 택한 것 또한 깊은 인상으로 남아 있다. 여행을 가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미얀마라는 나라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었다. 여행을 떠나며 알게 된 사실은 바로 1962년부터 53년간 정권을 잡아온 군부가 2015년 11월, 아웅산 수찌 고문이 이끄는 NLD가 승리하며 정권의 교체되었다는 것이었다. 미얀마를 검색하면 여기저기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사들이 눈에 띄었다. 미얀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을 들은 나는 잔뜩 겁을 먹은 채 미얀마의 옛 수도인 양곤에 도착했다. 밤늦게 도착한 양곤 공항에는 인적이 드물었고, 어두운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었다. 빛이 적은 도시를 가로지르며 나는 마음속으로 약간의 후회를 했다. 그러나 그 첫인상은 작은 도시들을 향해 갈수록 점점 변화해 갔다. 살면서 한번도 본 적이 없는 신비로운 사원들, 광대한 자연, 그리고 맑고 순수한 웃음을 가진 사람들... 함께 여행을 갔던 아버지의 친구분은 미얀마에 자주 여행을 오셨던 분이였다. 그 분	

에게는 오래된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의 이름은 쪼민이었다. 우리는 쪼민이 사는 동네에 가서 며칠을 묵을 생각이었다. 그리고 그곳에 묵는 동안 한 초등학교의 건물을 보수해 주는 봉사활동을 하기도 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나는 별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았기에, 교실 밖으로 나온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아이들이 축구를 시작했을 때 나는 나무 그늘 아래 앉아 홀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때 한 소년이 내게 다가와 말을 걸었고, 나는 그 아이를 따라 학교 근처에 있던 작은 건물 안으로 함께 들어갔다. 그곳은 아이들의 갖가지 용품이 있는 공간이었다. 축구공, 먼지 쌓인 책상들, 그리고 책들이 책꽂이에 꽂혀 있었다. 그 아이는 한 책을 꺼내 들고는 내게 보여 주었다. 그것은 미얀마어로 된 만화책이었다. 나는 그 아이의 말과 책에 써져 있는 문자들을 전혀 읽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즐겁고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 우리는 서로 말 한마디 하지 않았지만, 삼십 분 가량의 짧은 시간 동안 다른 이들은 침범할 수 없는 종류의 시간을 보낸 듯했다. 그리고 미얀마에서의 기억은 내 가슴속에 가장 특별한 기억으로 남게 되었다.

그로부터 칠 년이 지났다. 뉴스에는 아웅산수찌가 구금되었고, 군사 정권의 쿠데타가 벌어졌다는 소식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전에 내가 책을 읽을 때 가장 주목했던 것은 나폴레옹과 스컬러, 그리고 복서였다. 그러나 이번 독서에서 가장 눈에 들어온 캐릭터는 바로 다름 아닌 벤자민이었다. 벤자민의 비중은 많지도 않을 뿐더러, 그의 역할이 가장 크게 드러난 때는 단 한 번 뿐이었다. 바로 그의 친구인 복서가 끌려가는 장면이다. 벤자민은 다친 복서가 끌려가는 것을 보며 소리친다. 복서는 지금 폐마 도축업자에게 끌려가는 것이라고! 그러나 동물들은 복서를 싣고 빠르게 질주하는 마차를 놓친다. 며칠 후 복서를 팔아넘긴 돈으로 돼지들이 위스키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나온다. 늙은 당나귀 벤자민은 글을 읽을 줄 알았다. 그것은 돼지들을 제외하면 거의 유일한 동물이었다. 또한 그는 돼지들이 행한 모든 부패한 행동들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침묵으로 일관했다. 농장은 분명 그 자체로는 전보다 부유해졌지만, 농장에 사는 동물들은 돼지들과 개들을 제외하면 이전보다 나아진 것이 없었다. 복서가 끌려간 후 늙은 당나귀 벤자민은 이렇게 중얼거린다. 지금의 사정이 옛날보다 더 나을 것도 못할 것도 없고, 앞으로 더 나아지거나 더 못해지지 않을 것이며 굶주림과 고생과 실망은 삶의 바꿀 수 없는 불변 법칙이라고 말이다.

사실 당나귀 벤자민이 눈앞에 일어나는 것들을 모르는 척하고 회의적인 태도를 지닌 것은 그의 잘못이 아니다. 자유를 빌미로 수많은 동물들을 자신의 권력을 위해 이용하고, 욕심을 키워나가며 독재 정치를 펼친 나폴레옹이 가장 큰 잘못을 지녔음은 당연한 사실이다. 그러나 만약 어느 동물이든 쫓겨나간 스노볼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했더라면, 양들이 돼지들에게 배운 노래를 곧이 곧대로 따라 부르지 않았더라면, 그리고 복서가 무조건적인 신뢰로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았더라면, 나폴레옹의

정권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나폴레옹의 권력을 키우는데 필요한 노동력을 제공한 가장 큰 주요 동물은, 가장 자유를 갈망했던 복서였다. 나폴레옹이 타락하는 과정에서 비단 돼지들만이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을 보았다. 동물들의 무지와 무기력함 또한 나폴레옹이 힘을 키워나가는데 힘을 보탤 수 있었다. 독재와 파시즘은 지배 집단만의 산물이 아니니 말이다. 누군가를 독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지배하려는 집단의 동조 또한 뒤따른다.

아웅산수찌의 공포로부터의 자유 연설 중 이런 구절이 있다. “부패한 권력은 권력이 아니라 공포다. 권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공포는 권력을 휘두르는 자를 부패시키고, 권력의 채찍에 대한 공포는 복종하는 사람을 타락시킨다.” 그러나 나는 여기에 또 다른 공포를 덧붙이고 싶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무관심으로부터 나오는 공포다. 미얀마에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군사 독재가 유지되었는지, 미얀마 내 소수민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 내전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어렵게 얻은 민주주의를 향한 자유가 얼마나 쉽게 무너져 내렸는지, 우리들은 자세히 알지 못한다. 물론 누군가는 잘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들이 겪을 아픔과 공포는 우리가 실제로 느끼기엔 한계가 있다. 하물며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독립 투쟁과 민주화 운동 또한 겪어 보지 않은 세대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기란 어려운 일이다. 그만큼 사람들의 관심은 빠르게 다른 흥밋거리를 찾아가며 무관심으로 바뀐다. 미얀마의 쿠데타와 민간인 학살도 아직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도, 우리의 시선은 벌써 올림픽이나, 또 다른 아픔이 존재하는 아프가니스탄으로 빼앗겨 버렸다.

오웰의 잘 알려진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에서 그는 정치적이지 않은 책은 세상에 없다고 이야기한다. 또한 ‘문학을 지키는 예방책’이라는 에세이에는 이런 구절이 나온다. “진정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진실하게 보도할 권리다. 어떤 관찰자든 무지, 편견, 자기기만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최대한 진실하게 보도할 수 있는 권리 말이다.”

조지 오웰은 무려 다섯 해 동안이나 버마에서 제국 경찰 일을 해 왔다. 그리고 그로 인해 가난과 좌절, 권위에 대한 혐오를 더붙여 노동 계급의 존재에 대해 완전히 알게 되었다. 버마에서 산 경험 덕분에 제국주의 실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미얀마는 어떠한가? 당시 오웰이 근무하던 시절과 같이 미얀마의 상황은 현재까지도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 영국이라는 식민지에서 벗어났으나, 아직까지도 소수 부족들 간의 문제들을 겪고 있으며, 더불어 쿠데타가 발생해 자국의 경찰들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있다. 과연 미얀마는 과거에 비해 더 행복해졌는가? 이러한 상황을 보고 있다면 당나귀 벤자민이 중얼거렸던 말이 사실처럼 느껴지기도 한다. 만약 미얀마에 살고 있는 주민 중 한 명이 벤자민과 같은 입장을 취하더라도, 우리가 과연 그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벤자민 같은 사람의 도움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오웰이 말처럼

어떤 관찰자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대한 진실하게 보도할 수 있는 권리를 지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진정한 문학을 지키는 예방책이, 진정한 자유를, 그리고 진정한 동물, 혹은 인간들을 지키는 예방책이 될 수도 있다. 문학과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계는 관련이 깊다. 문학이란 곧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와 사람들을 주제로 한 작품이기 때문이다. 그 속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는 작품의 무대가 되고, 살아가는 인물들이 주인공이 된다. 오웰이 스탈린주의를 비판하기 위해 동물농장을 써 낸 것처럼 말이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미얀마에 관한 일로 언론이 떠들썩할 때 나는 단 한 번도 기사를 읽지 못했다. 뉴스와 인터넷 속에는 미얀마가 처한 상황에 대해 끔찍하리만큼 자세히 묘사되어 있었지만, 나는 그것들을 차마 읽을 수 없었다. 이따금씩 미얀마에 갔던 기억들을 떠올린다. 이미 칠 년이나 지났지만 어떤 기억은 그날처럼 생생하게 느껴진다. 쪼민의 오토바이 뒤에 앉아 작은 동네를 한 바퀴 돌았던 일, 한 꼬마와 들만의 장소에서 느리게 책을 읽었던 일, 신비한 사원들과 친절했던 사람들을 말이다. 그 당시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내게 웃음을 지어 줬다. 그 웃음들은 내가 살면서 몇 번 본 적이 없는 순수함을 띠고 있었기에, 나는 그들을 따라 웃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이 고통받는 모습을 떠올리면 참을 수 없이 가슴이 답답해진다. 어쩌면 그들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모른다. 나는 내가 만약 미얀마에 갔던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렇게 고통스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홀로 괴로워했다.

하지만 오웰의 동물농장을 다시 읽은 후, 내가 했던 행동들이 썩 좋은 방법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우쳤다. 동물농장은 대표적인 풍자 소설이다. 그리고 풍자는 대개 약자에 관한 서사이다. 이 약자는 권력보다는 진실의 편에 서고자 하기 때문에 궁지로 몰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누구의 편에 설 수 있을까. 모든 것을 알면서도 진실을 외면하는 강자들의 편인가, 아니면 진실에 가까워지고자 하는 약자들의 편인가. 나는 진실의 편에 서고 싶다. 오웰이 쓰고자 했던 것, 미얀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역사 속에서 쟁취하고자 노력했던 것, 그리고 그들에게 힘이 될 만한 것을 이루어 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포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나 또한 눈앞에 놓인 현실들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멀리 떨어진 곳이라 해도 많은 곳에서 관심과 응원을 보낸다면, 미얀마의 봄이 조금 더 빨리 찾아오리라 믿는다. 나는 그들이 겨울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다할 것이다. 당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오웰의 글쓰기와 같은 방식이라면, 기꺼이 말이다.

(*)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최우수상)>

도서명	동물농장
저자	조지 오웰
제목	존재의 당위성을 피력하는 세계, 우리의 사회

무능한 독재자가 권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하나는 무능함을 포장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을 갖는 것, 다른 하나는 무능함을 유능함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배움과 성장의 능력이다. 독재자는 자신의 생존과 사회를 휘어잡는 권력을 동시에 유지해야 하지만, 독재자 수하의 시민은 그의 사회 안에서 생존하는 방식을 깨우쳐야만 한다. 그것은 주동자와 피동자, 양자의 사회가 굴러가는 방식이자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녀야 하는 생존 방식이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두 존재(주동자와 피동자)의 생존방식과 독재방식을 가장 뚜렷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우화에 빗대어 표현한 만큼 인간인 독자는 ‘동물’의 사회를 바라보며 혁명의 시작과 과정 그리고 결말을 유쾌하게 읽어낼 수 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들이 만드는 존재, 권력을 갖고 나누고 뺏(기)는 다양한 존재들의 관계와 그들이 형성하는 사회의 흐름에도 머물 필요가 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닌 동물이 스스로 만들어 내는 힘과 그것의 당위성. 작가가 만들어낸 그들만의 세상에서, 동물이 아닌 인간 ‘우리’가 취해야 하는 자세, 그리고 형성과 같은 선상에서 파괴되는 존재에 대해서.

그들이 만드는 존재

작품의 시작은 독재자를 몰아내는 동물의 반란에 있다. 농장 안의 동물에게 인간은, 자신들의 삶을 영위해주는 feeder(양식자)로서 식食과 주住를 책임지는 거대하고도 필수적인 존재로 인식되었다. 그런 인간이 농장주의 역할이자 독재의 가장 기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함이 반란에 당위성을 부여해준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능한 인간 독재자를 밀어내며 새롭게 권력을 지니는 ‘존재’에 있는데, 같지만 다르게 인식되는 두 존재(초기의 권력자와 새로운 권력자)를 비교해 볼 때, 그들의 존재에 대해 더 면밀히 생각해 볼 수 있다.

인간을 몰아내면서부터 시작되는 동물사회는 마치 인간사회 형성의 초기 모습과 흡사하다고 느껴진다. 돼지, 말, 양, 개 등 다양한 종의 표면적 모습과 그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 특정 인물을 떠올릴 수 있을 만큼 이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단순하다. 인간인 독자의 경험적 시선이 글 속으로 따라 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식하는 사회의 모습은 무얼까. 그들에게 표본이 되었던, 사회와 농장주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무엇이였을까. 새로운 동물사회 안에서는 규칙과 통솔, 그리고 그것을 지휘할 수 있는 존재로 정의한다. 반란을 일으킨 것은 동물사회의 ‘모두’ 지

만, 그것을 계획하고 이끈 자가 결과를 만들고 책임지는 대표가 된다. 농장을 운영하기 위해 동물들을 데려와 자신의 삶을 영위하는 인간처럼 말이다. 즉, 그들의 존재의 미를 만드는 것 자체가 하나의 사회 형성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사회는 단 하나의 존재로는 굴러가지 않는다. 힘을 갖는 자가 있다면, 힘에 지배되어 그를 따르고 움직이는 피동자가 필요한 법이다. 그것이 독재권, 협력이권 둘 이상이 모였을 때 사회는 형성되기 시작한다. 내가 이들의 사회에서 찾고 싶은 것은, 동물농장 속의 주동자와 피동자의 역할이다. 그들의 역할이 단순하게 힘으로 압박하거나, 그것에 압도당해 수궁하는 단면적인 역할이었다면 작품의 모양새는 노예 관계에 대한 고찰에 그쳤을 것이다. 하지만, <동물농장>에서 부여된 동물의 감정과 인간과 유사한 사고방식은 이들의 역할성이 다면적일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음에, 이들의 사회를 더욱 깊숙이 들여다볼 이유를 제공한다.

역할성과 당위성

동물사회에 등장하는 다양한 종의 수만큼, 그들 안에서도 다양한 역할성이 드러난다. 권력을 잡는 돼지와 권력자에 대항하는 또 다른 돼지, 대항자에게 힘을 신는 개, 언론 플레이어라고 불릴 수 있는 시각적 놀음에 피해자가 되는 말, 양식을 제공하게 되는 소까지, 이들은 각자의 특성을 갖기에 자연스레 각자의 역할성을 지니게 된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는 것은 권력자인 돼지, 하나에 불과하다. 그것은 권력자가 계속해서 같은 힘을 쥐고 피동자를 만들어 내는 이유이자, 혁명으로 시작된 그들의 사회가 몰락하는 원인이다. 권력자에 대항하는 또 다른 돼지조차, 그의 권력 횡포에 감시적인 시선을 건네지 못한다. 이들은 ‘권력’이라는 가장 표면적인 달콤함에 휩쓸려 스스로를 피동자로 굳히고, 또 다른 반란을 꿈꾸기를 반복한다.

인간사회에서 벗어나 주체자가 되어서조차, 기존의 ‘인간’ 과도 같은 독재자에게 주체성을 뺏기는 것. 그것이 인간과 동물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사회를 만들고 부수기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이유다.

그들의 사회는 단순히 정치를 표명하고 비판하는 풍자 이야기는 아니다. 과연 우리, 주동자이거나 피동자에 위치 해있는 우리의 역할이 누군가에 의해 부여되는 수동적인 행위에 그쳐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역할과 지위에는 그만한 책임이 따르며, 그 책임에는 당위성이 존재한다. 힘을 갖지 못한 이들만큼 그들이 더 많은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에 따라 차등되는 지위에 불만을 갖는 이는 없다. 하지만 이들의 힘이 악용될 때, 우리는 분명하게 목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한다. 젖소의 우유와 굴러다니는 사과알은 사회 속 시민들이 버린 그들의 역할성이다. 누군가에게 부여받아야만 존재할 수 있는 지위가 아닌, 모두가 함께 만든 규율인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에 당위적으로 따라붙는 모두의 권리이기 때문이다.

작가 조지 오웰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들의 역할에 따르는 당위성을 피력한다. 여기서 말하는 역할은 누군가가 부여하거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지위에 한정되지 않는다. 시민이라면, 인간이나 동물이라는 생명의 존재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자신의 권리에 대한 책임이다. 사회 안에서 피어나는 수많은 반란과 혁명 속에서도, 결국 그들이 가장 먼저 취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마땅히 받아내야 할 권리와 자유에 있다. 어떤 사회에 있는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천 명의 존재가 있다면, 천 명의 존재가 모두 다른 모습을 취하고 각자의 역할을 지니는 것이 당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우리의 역할은 ‘우리’가 존재함으로부터 그 힘을 얻는다. 조지 오웰의 인간사회가 아닌 동물의 사회로부터 만들어 낸 이유 또한, 어떤 위치에 있던 우리 모두가 마땅히 지켜내야 할 것들은 지구 아래 모든 존재에게 당위적으로 존재함을 피력하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제6회 CNU 리드미^{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우수상)>

도서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저자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제목	함께 이기는 협상
협상 이야기에 앞서, 얼마 전 레스토랑에서 겪었던 작은 소란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나는 그날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도 좋은 음식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했다. 친구들도 이 의견에 찬성하여서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먹기로 결정했다. 레스토랑 영업점에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탄 이후에도 먼 거리를 걸어야 했지만, 우리는 불만 하나 없이 오히려 들뜬 마음으로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주문을 마치고 빵과 수프를 먹고 있으니 금방 잘 구워진 스테이크가 나왔다. 커다란 뼈에 넓게 분포된 꽃등심, 그것을 외곽으로 감싸는 새우살과 뼈에 붙은 늑간살이 육즙을 가득 품고 지글거렸다. 종업원은 친절하게 각 부위를 설명하며 고기를 찢어주었고 우리는 그 순간을 만끽하고 있었다. 그 순간이었다. 커다란 고깃덩이에서 새우살을 분리한 순간, 새우살이 기름에 미끄러지며 순식간에 도마를 벗어나 바닥으로 떨어진 것이다! 새우살이 소 한 마리에서 얼마 나오지 않는 귀하고 맛있는 부위라는 설명을 들던 우리는 상당히 놀랄 수밖에 없었다. 종업원은 우리보다도 더 놀란 눈치였다. 종업원은 우리에게 양해를 구하더니 어디론가 급하게 뛰어갔다.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종업원은 돌아와 메뉴판을 쏙으며, 새우살을 못 먹게 된 대신 등심 스테이크를 하나 더 해주겠다고 제안했다. 우리는 새우살을 먹지 못한다는 사실에 다소 실망했지만, 알겠다면 연신 사과하는 종업원을 달래어 돌려보냈다. 잠시 소란이 있었지만 우리는 밀린 이야기를 나누며 맛있게 고기를 먹었다.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그렇게 결제를 마치고 나오는데, 한 친구가 놀라운 말을 꺼냈다. “만약에 우리가 ‘그래도 새우살이 먹고 싶어요!’라고 말했으면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하나 더 해주지 않았을까?” 그 말은 대단히 충격적이었다. 나의 친구는 조금 전의 일을 협상 기회로 본 것이다! 대학교를 다니며 협상에 관해 공부할 기회가 많이 있었다. 개중에는 재무적 위기에 처한 20억 가치의 신발 회사를 120억에 매각했다는, 그야말로 천 냥 빚을 갚은 탁월한 협상 사례도 있었다. 그런데 레스토랑에서는 그 상황이 협상인지조차 알아채지 못했다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협상의 첫걸음은 해당 상황이 협상임을 인지하는 것이라고 한다. 오랜 기간 와튼스쿨에서 협상학을 가르친 스텐턴 다이아몬드는 그의 저서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에서 ‘우리는 항상 협상 속에서 살고 있고 협상이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며 협상이 일상적인 의사소통임을 강조했다. 협상은 양복을 차려입은 일부 전문가들의 전유물이 아니다. 가령 가족들에게 반려동물로 강아지를 기르고 싶다고 말할 때, 중식을 시키며 짬뽕 대신 2인분부터 배달이 되는 쟁반짜장을 먹자고 설득할 때,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이 실수로 고기를 떨어뜨렸을 때 등. 우리는 일상 속에서	

다양한 협상을 맞이한다. 하지만 해당 상황이 협상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전략적 단계로 넘어갈 수 없다. 상대의 입장을 파악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정한 상태로 의사소통하면 훨씬 나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 만약 가족들이 강아지의 털이 많이 날릴 것을 걱정한다면 털이 짧은 종은 어떠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강아지가 짖는 것을 우려한다면 조용한 고양이를 기를 수도 있다. 협상은 서로의 마음을 더 깊게 이해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협상 도중에 가족들이 반려동물에 큰 부담을 느낀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단념하는 것도 대단히 의미 있는 결과이다. 적어도 왜 반려동물을 못 키우게 하는지 모르겠다며 마음 상해할 일은 없지 않은가?

만약 새우살이 바닥으로 떨어진 당시의 레스토랑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떤 전략을 구사해볼 수 있을까? 종업원이 이미 실수를 하였고 서비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쉬운 협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친구의 말대로 단순히 음식을 다시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만으로 새 제품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앞서 테이블까지 나온 다른 고기는 더는 상품성이 없기 때문에 다시 가져가지도 않을 것이다. 만약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면 표준과 프레이밍을 활용할 수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중요한 가치를 거론함으로써 행동을 촉구하는 방법이다. 해당 레스토랑의 캐치프레이즈를 이용하면 이렇게 말해볼 수 있다. “저기에 잊지 못할 기억을 준다고 적혀있던데, 새우살을 다시 주신다면 저희도 좋은 기억이라 생각하고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캐치프레이즈나 광고 문구가 없다면 ‘좋은 저녁 식사를 제공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와 같은 상투적인 말로 시작해도 좋다. 으레 레스토랑이라면 통용될 말이다. 이조차 여의치 않다면 추가적인 할인이나 쿠폰을 요구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나는 다시 돌아간대도 직원의 제의를 순순히 받아들일 것 같다. 우리는 항상 다음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협상을 통해 새 토마호크 스테이크를 받아내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당장은 기쁘겠지만 테이블에 가득 쌓인 고기를 다 먹지 못하고 버리게 될 것이다. 종업원은 일을 가르쳐주는 상사에게 혼나게 될지도 모르고 때에 따라서는 자비로 손해를 메꾸어야 할 수도 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왜 고작 고기 한 덩이 떨어뜨린 일로 연신 허리를 굽히며 사과를 주고받아야 하는가? 저자는 강력한 협상 도구들을 제시하면서도 협상에는 선이 있다고 말하였다. 적극적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이는 좋은 협상이겠지만, 강압적인 태도로 상대를 약탈한다면 이는 나쁜 협상이다.

책을 읽으며 흥미로웠던 부분은 저자가 협상을 최대한 호혜적인 관점에서 접근한다는 점에 있다. 상대를 압박하는 식으로 협상에서 이기면 당장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어렵고, 회사를 대표하는 경우에는 평판 문제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저자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관계에서 가져갈 수 있는 파이를 키우며 서로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지속적인 관계가 아닌 일회성 관계인 경우에도 최소한의 선을

지켜야 한다. 이는 사회를 함께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매너이기도 하다. 흔히 요즘 사회를 단절사회라고 표현한다. 이는 굉장히 역설적인 말이다. 우리는 인터넷 전산망 속에서 어느 때보다도 연결되어 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의 입장과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사라지지 않은 갑질 문화, 자영업자에 대한 과도한 서비스 요구와 같은 사건들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었다. 이 지점에서 나는 저자의 가르침이 훌륭한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를 약탈하는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적극적으로 이익을 좇되, 서로에게 혜택을 줄 방법을 모색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원하는 것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우수상)>

도서명	맹자
저자	맹자
제목	맹자의 사상과 뉴 노멀 시대의 사회 규범
범유행전염병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온 세상에 퍼짐에 따라 인류 사회가 내재한 여러 문제점이 수면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이 시대에 일상생활의 지장으로 하여금 생긴 스트레스, 화를 나쁜 방법으로 푸는 이들이 있다. 덧붙여 단순히 이기적인 수준을 넘어 교묘하게 범망을 피하려 들어 집단감염을 일으킨 이들, 자신의 권리를 그 무엇보다 우선해 남들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이들 등 많은 이기적이며 비윤리적인 행태가 나타났다. 또한 인류의 활동이 감소함에 따라 인류가 망가트린 환경이 조금씩 복원되고 죽은 줄 알았던 생명이 돌아오는 등 기적적이고 이례적인 이변 또한 일어났다. 우리가 겪고 있는 일련의 사건은 무엇인가? 이는 곧 사상의 갈등이고, 개인주의의 탈을 쓴 이기주의의 확산이며, 쾌락중심주의를 넘어선 쾌락지상주의의 폐단이다. 인간중심주의의 어두운 일면이기도 하며, 인간이 지금 같지 않다면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하지만 보는 것만으로 모든 행동과 폐단을 극복할 수 있다면 그것은 거짓말이다. 우리에게겐 규칙이 필요하다. 사회의 규범이 필요하다. 서구 사회는 그리스교의 윤리 아래에 오래토록 체계화되어 왔다. 그들의 체계적인 발전은 그들에게 뚜렷한 단 한 가지의 사상만이 영향을 줘서 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 실로 그리스교의 교리는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서든 어찌서든 보편타당하게 받아들여졌고,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에 공헌하였다. 반대로 동아시아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불교와 유교이다. 그 다음으론 아마 도교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규범은 지난 시대의 격동의 세월 속에서 무너지고 말았다. 사람과 문화, 나라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사회적 규범, 윤리에 대한 인식은 사문화되었으며, 철학은 지식만 남아 우리는 아노미(무규범)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 대한 모범답안, 즉, 윤리적 표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저 말초적인 쾌락에 몸을 맡기게 되었다. 하지만 동아시아를 조금 먼저 강타한 규범의 붕괴는 결국 서구 사회도 가만 두지는 않았다. 단순히 개인주의라고 부르기엔 유감스러운 사람들의 이기적 행태의 확산, 유럽연합이라는 공동체의 탄생과 그 공동체의, 소위 ‘폭탄 돌리기’라 불리는 폐단이 있었다. 이로 인한 국방력 감소와 코로나 사태 속 의료체계 붕괴가 일어났다. 또한 근대, 현대를 거치며 나타난 그리스교적 윤리 규범의 왜곡과 붕괴, 이로 인한 배금주의와 쾌락지상주의의 팽배, 그 등을 업고 비대하게 세를 불린 신자유주의 그 자체의 폭정과 억압으로 인해 서구 사회의 규범 또한 무너졌다. 현대화는 그렇게 동서 사회를 공평하게 망가트렸다.	

이렇게 우리는 규범을 잃었으며, 한국 사회가 새로 받아들인 규범은 풍토와 맞지 않았다. 이에 맞서 설령 우리가 고전적 서양의 크리스티교 윤리를 사회에 세운다 한들 그것이 우리가 오래토록 쌓아온 문화와 상충하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풍토가 서양과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이는 정치 지평에서도 그렇다. 영국으로부터 시작된 좌, 우파 구분은 동아시아의 철학과는 어울리거나 맞지 않아 보인다. 가령 ‘보수주의자’가 서구 사회에서 고전적인 모습인, 귀족적, 부르주아적, 유일신교적 인식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본다면, 동양의 ‘보수주의자’는 말뜻만 놓고 보자면 유·불·도교 철학을 충실히 따르고 고전적 가치를 수호하는 모습을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 삼대종교에서 말하는 인본주의적 세계관과, 평등하며 상호보완적이라 우선순위가 없는 관계, 무위에 대한 동경은 서양에선 오히려 좌익적 사상이다. 반면에 오히려 우리에게 새로운 것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상 지평 그 자체이다.

세계의 서구 일변도적 윤리는 이렇게 폐단을 낳았다. 유감스럽게도 변질된 그들이 잃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가졌던 ‘관용과 사랑’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악의와 혼돈에 점철된 이 사회를 우린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우리는 무엇에 감동을 받는가? 지난 올림픽에서, 올림픽은 분명 줄 세우기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서로 이겨야 하는, 반대편에 선 선수들끼리 서로를 존중하고, 때로 돕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겨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도리를 지켰다. 이를 보고 옳지 못하다거나 불쾌한 일이라고 여길 이는 적을 것이다. 선함,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내재된 좋은 느낌이란 이런 작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맹자의 사상을 돌아볼 수 있다. 단순히 중·고등학교 교재에서 배운 대로 ‘사람은 날 때 착하다’라는 말로 정의하는 것은 그의 사상에 어울리지 않는다. 맹자의 성선설은 ‘사람이 무조건 나쁠 게 무엇이냐?’라는 말에 가깝다. 사람의 본성은 이기적이지만은 않다. 사람은 또한 선량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과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밝혀진 바 있다. 사람과 같은 사회를 이루는 동물들은 주변 존재들이 주는 긍정적 반응에서 이기적 행위 이상으로 만족감과 성취감, 안정감 등을 느낀다는 연구 결과가 있으며, 피식자의 포식자 관계로 설명하고는 있으나, 그만으로는 모호하다고 분석되기도 하는 흑등고래의 인명 구조 사례, 어미 잃은 새끼 원숭이를 표범이 보살피려 한 사례 등의 관측 결과가 존재한다. 이는 또한 ‘이기적이기만 한 유전자’라는 발상이 편협하다는 좋은 증거이기도 하다.

맹자는 말했다. “사람과 금수는 별반 다르지 않은데, 사람은 선악을 구분해 선함을 뚜렷하게 실천할 줄 안다. 군자는 그 특성을 잘 발전시키고, 속 좁은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여기서 군자라는 말은 곧 군주 될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마땅히 사람을 이끌 자격이 있는 사람. 민주주의의 사회에서 이는 곧 수많은 사람 개개인이다. 사회와 그 구성원들을 개인은 서로를 이끌고 있다. 그러니 그들은 또한 군주이며, 올바른

군주는 곧 군자의 성품을 지닌다. 맹자는 군자가 지키는 선한 마음의 깊은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인간 본연의 선한 마음을 사단이라 하였다. 사단은 곧 네 가지 사람의 마음, 측은지심, 수오지심, 시비지심, 사양지심이다. 남의 고통에 공감해 그 고통을 가엾게 여기고, 내가 행한 나쁜 일을 부끄러워하며 남이 행한 나쁜 일을 싫어할 수 있고, 옳고 그름을 가릴 수 있고, 좋은 일을 나눌 줄 아는 마음이다. 요즘 말로는 공감능력, 메타인지능력, 판단력, 양보와 나눔이다.

현대의 무한경쟁사회는 양보를 지양한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사람이 성취하고 발전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양보와 나눔은 그들에게 있어 사문난적, 극단적 신자유주의자의 시선으로는 사서 고생하는, 도태되어야 할 존재가 할 만한 것이다. 그들은 공감하라고 하고, 메타인지를 통해 자신의 행동의 가치를 재단하고, 또 외부의 가치를 재단하라고 하지만, 절대 그것을 사람들의 웃음을 위해 쓰라고 장려하지 않는다. 동시에, 주변 사람들 하나하나를 보살피는 인간적 행위를 공동체를 위해 희생하는 전체주의와 동일시하며 멸시하기까지 한다. 하지만 우리 인간 사회가 현대가 되기 전까지 한 번이라도 이것을 미풍양속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는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아름답고 좋은 풍속, 즉, 미풍양속은 크리스티교에서 이웃과 원수마저도 사랑하는 관용과 포용이었다. 불교에서는 모든 과한 의존과 흔들림을 내려놓고 자신을 믿고 주변 사람들을 질투하지도 깔보지도 않는 평정심이었다. 도교에서는 인위적으로 주변 세상을 비틀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는 무위였다. 그리고 맹자에게 있어서 그것은 만난 사람들의 사연에 공감하는 것이었다. 그들과 좋은 것은 좋은 것대로, 나쁜 것은 나쁜 것대로 나누는 것이었다. 불의와 슬픔을 함께 이겨내고, 기쁨과 정의를 함께 즐기는 것이었다. 맹자는 문왕을 예시로 들며 왕이 아무리 사람들을 동원해 화려한 정원을 꾸며도 백성과 함께 즐기면(與民偕樂) 백성들은 노여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니 우리는 함께 나누고 즐긴다면, 힘든 것이라고 못 할 것이 없는 것이다.

21세기는 정의와 그 기준을 상실한 시대로서 그 비대한 구조를 지탱하기 위해 동서양도 없고 빈부의 다름도 없이 모두의 마음과 정신을 수탈하고 있다. 이 구조 속에서 진정한 행복한 사람은 소수이며, 어쩌면 아예 없을지도 모르는 노릇이다. 이러한 혼란기에 우리는 무너진 인류애와 이웃 사랑을 되찾기 위해 선량함과 사랑을 알려줄 규범이 필요하다. 그것은 분명 많은 종교와 철학이 가졌지만, 인간에 대한 믿음과 선한 가치를 강조한 맹자의 사상은 그 중에서도 특별하며 또 우리에게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우주가 아직 어릴 때 생겨난 인류라는 문명은 자신들의 악행을 답습해 우주의 잔인한 정복자가 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태고의 성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그게 아마 학살자보다는 멋진 칭호라고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장려상)>

도서명	동물농장
저자	조지 오웰
제목	정의롭다는 착각
현재 집단 간의 갈등은 전 지구적 문제이다. 성별로 인한 갈등, 인종으로 인한 갈등, 경제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 등 수많은 갈등이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갈등들이 발생함으로써 대립되는 두 집단 간에 문제는 결국 하나의 결과로 이어져 사회가 변화하거나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만약 변화를 도출해낸다면 그 변화는 옳을 것인가? 또한 변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의미 없는 것일까? 서로 자신들이 옳다고, 정의롭다고 주장하는 갈등 중에 옳고 정의로운 주장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에 대한 통찰을 소설 동물농장을 통해 할 수 있었다. 보통 어떤 집단이나 사회의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때 사람들은 혁명을 외친다. 혁명의 사전적 의미는 기존의 사회 전반을 구성하는 관습을 타파하고 새로운 무언가를 정립시켜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동물농장에서는 동물들이 주체가 된 혁명을 일으켜 농장의 주인으로 군림한 인간이 정립한 농장의 질서를 무너뜨린다. 이와 같은 혁명은 인간사에도 일어났다. 프랑스 평민들이 프랑스왕조가 정립한 사회 질서를 무너뜨린 프랑스 혁명, 러시아 평민들이 부패한 러시아 왕조를 무너뜨린 러시아 혁명 등이 있다. 위의 사전적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 혁명의 주체가 된 것은 순서대로 농장의 다수인 동물, 프랑스의 다수인 프랑스 평민, 러시아의 다수인 러시아 평민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인간사회의 큰 혁명은 어떤 집단에서 대다수의 동의에 의해서 일어남을 알 수 있다. 즉 혁명은 다수의 통합적 결의에 의해 이끌어진 사회적 변화이다. 하지만 혁명은 위에서의 사전적 정의 안에서 또 하나의 조건이 있다. 헌법을 벗어난 행위를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다.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다. 기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인 약속이 헌법이고 혁명은 이런 기존의 질서를 타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소설 안에서도 인간사회에서 헌법으로 대변되는 농장의 질서를 동물들은 무시해버리고 그들의 새로운 질서 아래 농장을 점령한다. 이런 행동을 과연 우리는 ‘정의롭다’, ‘올바르다’ 고 생각할 수 있는가? 당장 우리 사회로 대입하여 살펴보자. 위에 언급한 대로 우리 사회에는 다양한 갈등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경제적 양극화 갈등을 예로 들면, 소수의 자본가가 사회적 풍요를 독식하고 대다수의 일반인은 절대적으로 적은 양의 부를 생취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 문장에 대해 어떤 생각인가? 공평하진 않지만 사회의 질서에 부합하다 생각하는가? 현재 사회의 질서에는 부합하지만 불공평하다고 생각되는가? 고민해봐야 할 문제이다. 변화의 갈림길에 서서 현상 유지와 사회변화 중에 골라야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고르게 될까?	

앞서 제시한 사회의 갈등 중에 하나인 경제적 갈등을 예로 들어보자. 사회의 자본을 독식하는 자본가와 그들의 운영하는 자본 아래에서 노동을 하며 근근이 살아가는 대다수의 사람들 간의 경제적 분배 차원의 갈등이다. 이 갈등을 앞서 제시한 두 가지의 경로로 나누어 보자.

첫 번째, 자본가들이 정립해놓은 시스템을 유지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자.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이고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다. 아마 앞서 말한 자본가와 일반인들의 갈등은 자본주의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빈부격차의 가속화로 갈등이 심해질 것이다. 자본의 이득을 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은 계속해서 힘들어질 것이고 거대 자본을 가진 자들은 그들의 자본을 눈 굴리듯이 키워나갈 것이다. 마치 소설 속에서 인간들이 만든 농장과 같이 인간들은 동물들을 이용하여 그들의 이윤을 창출할 것이고 동물들은 인간들의 이윤 창출을 위한 최소한의 대우만을 받으며 살아갈 것이다.

두 번째, 자본가들이 정립해놓은 현재의 시스템을 타파한다고 생각해보자. 이미 그런 사회는 인류사에서 존재했기에 바로 예시로 들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러시아 혁명을 통해 탄생한 소비에트 연방(이하 소련)으로 소위 공산주의 사회의 대부격인 국가이다. 소련은 부르주아 계층인 자본가들을 축출하고 사회의 지배계층들을 제거했다. 그 과정에서 억눌려있던 대다수의 사람(이하 인민)은 환호했고 그들은 이제 인민들의 유토피아가 도래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사회의 지배계층들이 수립해놓은 질서가 무너지자. 사람들의 생활에 필수재를 공급하던 자본들은 무너졌고 피해는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돌아갔으며 당시 진행 중이던 세계대전 중에도 나라를 이끌 명장들은 축출당해 없었기에 전쟁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스탈린, 소련공산당과 같은 지배계층들이 새롭게 등장했고 그들은 모든 인민의 평등을 주장했다지만 실제로는 평등하지 않았다. 결국, 혁명의 의미는 퇴색되어져 갔고 이름만 바뀐 채 사회적 계층은 다시 생겨났다. 서로 정의롭다고, 평등하다고 주장하며 일으켰던 혁명에서 결국에는 평등하지 않은 새로운 사회가 생겨났다. 이 상황은 소설에서 농장의 혁명 이후에 권력은 가진 돼지들이 ‘모든 동물은 평등하지만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욱 평등하다.’ 라고 한 것과 비교된다고 할 수 있다. 소수의 지배계층(작중 농장운영인)에 대한 반감으로 다수의 피지배계층(작중 동물들)은 모든 동물을 위한 혁명을 일으켰다. 하지만 기존의 피지배계층들이 기존의 지배계층이 사라지고 나서 모두가 지배계층과 같은 삶을 누릴 거라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그들 사이에서 새로운 지배계층으로 돼지들이 등장했다. 돼지들은 서로가 정의롭다고 주장하며 그들만의 정의를 주장했고 자기 뜻과 맞지 않을 경우 상대(같은 동물)를 배척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다. 현재 사회에 불만족하여 갈등이 발생할 때, 양쪽 모두 서로 정의롭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인간에게 있어서 절대 선은 존재하지 않는다. 모두가 이상적인 위치에 있고 싶어 하며 모두가 기득권을 누리고 싶어 하고 모두가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 결국에 정의라고 하는 것은 그저 명분일 뿐

이다. 그 누가 주장하든 완전무결한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기존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기에 갈등이 있었고 그 갈등으로 인해 혁명을 일으켰으며 혁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의 작품인 사회에는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고 폐단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소설에서도 기존의 인간중심의 농장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혁명 이후 동물중심의 농장에서도 문제가 있었다.

우리는 항상 이상을 꿈꾼다. 그리고 그 이상이 정의롭다고 생각하며 사회 전반에 실현하길 원한다. 하지만 그 이상이 항상 정의롭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완전무결한 사회의 시스템은 없으며 필연적으로 폐단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갈등이 필연적이기에 헌법의 가치아래 사회 안정을 도모하면서 서로 갈등을 최대한 조율해가며 각자의 주장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제 우리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장려상)>

도서명	동물농장
저자	조지 오웰
제목	성공한 혁명의 조건
혁명은 위대하다. 혁명은 백 년 넘게 이어져 왔던 국가를 무너뜨리거나, 굳건하던 신분제를 폐지하거나, 혹은 한 나라의 국왕을 폐위하는 힘이다. 이렇듯 혁명이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자명하다. 그렇다면 혁명은 반드시 모두에게 이로운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 영국의 작가 조지 오웰은 그의 소설 <동물농장>을 통해 모두에게 이로운 혁명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제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동물농장>은 인간 존스가 운영하던 농장에서 메이저라는 돼지의 계몽을 계기로 동물들에 의한 농장이 새로 만들어진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메이저는 유일한 적인 인간만 제거한다면 동물들의 고된 노동과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생산하지 않으면서 소비하는 유일한 동물인 인간을 비판하며 인간다움을 적폐로 규정하였다. 그의 죽음 이후 혁명이 성공하며 최초로 동물에 의한 농장이 만들어진다. 새롭게 등장한 동물농장의 계명은 인간은 모두 적이고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는 내용이었다. 돼지들이 똑똑하다는 사실에 모든 동물은 동의했고, 동물들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일은 자연스레 돼지들의 몫이 되었다. 돼지들은 직접 노동에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해결책을 제시하고 동물들의 노동을 감독하였다. 이전에도 항상 성실했던 말복서는 다른 동물보다 먼저 일어나 농장의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한편 돼지들은 교육을 명목으로 강아지들을 격리하였으며, 동물들의 사전동의 없이 우유와 사과를 독차지하였다. 시간이 흘러 동물농장의 혁명은 널리 퍼져나가 다른 농장의 동물들에게도 희망을, 혹은 반발심을 일으키고 자신의 동물들 역시 반항할까 두려워졌던 농장주인들은 동물농장을 재탈환하러 온다. 철저한 사전 준비로 그 전쟁에서도 동물들은 승리하였다. 승리 이후 돼지들 사이에도 균열이 생겼는데, 언변과 설득력이 뛰어난 나폴레옹과 각종 지식을 갖추고 있는 스노볼 사이의 갈등이었다. 스노볼은 초기에 노동력을 투자해 풍자를 건설한다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오히려 노동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연설을 하였고, 나폴레옹은 식량을 확보하는 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농장 방어문제에서도 대립했다. 이와 관련한 회의에서 동물들이 스노볼의 의견에 설득되는 것처럼 보이자 나폴레옹은 격리해 교육한 개들을 이용해 스노볼을 농장 밖으로 내쫓고는 회의를 폐지한다. 바야흐로 나폴레옹의 독재가 시작된 것이다. 몇몇의 동물들은 찻찻함을 지울 수 없었다. 그러나 달변가인 스컬러는 나폴레옹의 정당성에 대해 타고난 언변으로 설득하였다. 나폴레옹은 인간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초기의 계	

명을 깨고 달걀을 거래했으며 이에 대해 동물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기록이 없다는 핑계를 대었다. 나폴레옹은 점점 인간화되어 갔으며, 카드놀이를 하는 나폴레옹과 돼지들과 인간을 구분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소설은 끝이 난다.

처음의 질문으로 되돌아가서, 혁명을 통해 모두가 이전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 동물들은 모두 돼지들이 자신들보다 똑똑하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이 사실 자체는 반박할 수 없는 진실이다. 그러나 동물들은 돼지들이 자신들보다 똑똑하다는 이유로 지도자와 감시자 역할을 모두 돼지에게 맡긴다. 이는 함께 혁명을 통해 농장을 일구어낸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쉽게 포기한 것이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글자를 배워 똑똑한 돼지가 아니어도 능력 있는 동물이라면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돼지들의 독재는 한순간 발생한 것처럼 보이나 사전 작업이 분명 존재했다. 계명의 내용을 한 단어씩 바꾸고, 강아지들을 격리해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는 데 사용하고, 교활한 동물들을 이용해 여론을 조성하는 모습도 보였다.

대부분의 권력은 초기의 열정을 잃고 부패한다. 누군가에 의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더욱 그렇다. 이러한 독재가 현실 정치에서 발생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교육을 받는다. 정치적으로 독립된 학교에서 교육을 받으며, 국회나 정부가 결정한 사안에 대한 정당한 이유와 기록을 남기곤 한다. 따라서 시민들은 균형적인 사고와 비판적인 사고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단순히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믿기보다 그 이면을 통찰할 수 있는 시민이 된다면 독재를 막고 더 나아가 모두의 행복한 삶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한편 나 역시도 정치는 나보다 더 많이 배운 정치인들에게 맡겨버리는 것이 서로 편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 가슴이 뜨끔했다.

이를 포함해 이 책에서 더 생각해보고 싶은 지점에 대해 짚어보고자 한다. 인간 존슨을 몰아냈듯이 독재자 나폴레옹을 몰아내는 혁명은 발생할 수 없었던 것일까? 개인적으로 일제강점기에도 무단통치 시대보다 문화통치와 민족분열 정책을 통하여 가치관을 개조당한 것이 더 후대에 미치는 영향력이 컸다는 생각을 한다. 자신의 권리를 돼지들에게 맡기고, 아무런 비판 없이 그들을 믿었기에 나폴레옹의 회유와 선동에 설득된 것이다. 그렇기에 가능, 불가능 여부가 아니라 동물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방법을 배우기 전에는 계속 지배받는 삶이 반복되어 이어질 것이다.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 싶은 동물이 있다. 다름 아닌 벤저민이라는 당나귀이다. 벤저민은 이 소설 전체를 통틀어서 내가 가장 주목했던 동물이다. 그는 동물농장의 실체를 꿰뚫어 본 유일한 동물이다. 그렇지만 그는 회의론자라는 말로 자신을 보호하며 농장의 어떤 일에도 엮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 그런 그에게도 존경의 대상은 있었는데 묵묵하게 다른 동물의 몫까지 일하는 말 복서였다. 회의론자라는 것은 열성을 다해 살기가 두렵다는 뜻이다, 혹은 비겁하다는 뜻이다. 언제든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칠 준비가 되어있는 벤저민에게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복서는 존경의 대상이 아닐 수 없다. 나 역시 벤저민과 비슷한 성격으로 사람을 쉽게 신뢰하지 못하고, 변화에 회의적인 성격인 사람으로서 오직 확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모를 경외심이 든 적이 많다. 결국, 복서의 죽음은 회의론자인 벤저민을 움직이게 했다. 만약 벤저민이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감을 내려놓고 동물들을 설득해 동물농장을 개선해 나갔다면 어땠을까?

소설 <동물농장>의 집필 의도는 독자에게 혁명을 비난하거나 혁명 이후에 농장은 그 전과 똑같거나 혹은 새로운 독재자로 인해 더 악화한다는 무력감을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누군가의 희생과 의기투합으로 이뤄낸 혁명을 소중하게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알려주고 있다.

우리에게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그 이면을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이 필요하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지배받게 된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어두운 면을 알게 되었을 때는 회의적인 태도가 아니라 사회를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력으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여 세상을 바꾸어나가야 한다. (2,572자)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장려상)>

도서명	동물농장
저자	조지 오웰
제목	기억 저 너머 흐릿한 진실
“기억하거나 적어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이 책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고 많은 생각을 하게 했던 문장이다.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이후 스탈린 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소련 정치 상황을 묘사한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은 단순히 그 시대의 모순적 상황을 풍자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소설 <동물농장>의 메시지가 교훈이라고 하면, 부패한 정치 권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이라 하겠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권력으로 가득 찬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나에게 <동물농장>은 ‘기억’과 ‘생각’에 대한 의구심의 필요성과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의 역할에 대한 회고의 기회를 주었다. 수탉이 스노볼과 나폴레옹은 농장 주인인 주정뱅이 존스를 쫓아내고 동물농장을 이끌어 가게 된다. 농장의 동물들은 인간의 착취에서 벗어나 평등하고 고통 없는 사회를 꿈꾸며 혁명을 일으키지만, 결국 동물농장의 우두머리인 나폴레옹은 돼지의 탈을 쓴 인간의 모습으로 전락하고 농장의 동물들 역시 복종과 착취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다. 동물농장의 동물들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일련의 메시지를 던져준다. 농장의 절대 권력자 나폴레옹, 무던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말 복서, 동물농장의 크고 작은 일에 어떠한 관심도 기울이지 않는 당나귀 벤저민 등 동물농장 식구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공동체 속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유감스럽게도 그들 각각의 행동은 동물농장을 인간사회와 똑같은 곳으로 전락해버리는 데 일조했다. 비록 그들 모두는 자신의 행동이 옳다고 굳게 믿고 있었겠지만 말이다. 권력욕에 휩싸인 나폴레옹과 그를 추종하는 9마리의 개들이 만들어어나가는 동물농장의 모습은 독자에게 ‘독재’와 ‘권력 남용’은 사회를 피폐하게 만든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우리는 이 소설을 읽고 결코 독재자 나폴레옹만을 비난할 수는 없다. 권력의 소유자에서 잠시 시선을 돌려, 그 권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회 구성원의 모습에 주목해보자. 우리 사회에는 수많은 형태의 권력이 존재한다. 어쩌면 대한민국 군부 독재의 시대보다, 볼셰비키 혁명의 시대보다 강력하고 다양한 권력이 우리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지도 모른다. 어느 사회 집단이든 권력은 존재하기 마련이고, 권력을 소유하는 것의 기준은 경제 자원, 학벌, 사회적 지위, 익명성, 머릿수 등 복잡하고도 다양하다. 수많은 기준 아래 권력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권력이 만들어 낸 정보들 속에서 ‘사실’을 골라내는 것에 취약해졌으	

며, 온전한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 아니, 알고자 하는 용기조차 잃어버렸다. 때로는 심지어 그 권력을 주도적으로 형성하기까지 한다. 물론, 과감히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외치는 사람이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우리 중 많은 이들은 무관심과 무지함으로 우리 사회를 제자리걸음 하게 한다. 연예인과 관련된 근거 없는 소문이 익명성 아래 사실로 둔갑하고, 분노해야 마땅한 사회 이슈들이 언론의 힘이나 또 다른 이슈들로 인해 마치 없었던 일인 듯 조용히 묻혀버리는 것을 떠올려 보라. 우리는 때로 권력이 만들어내는 시대의 흐름이 옳지 않음을 알면서도 침묵으로 일관하거나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조차 구분할 줄 모르기도 한다.

짐수레를 끄는 말 복서는 동물농장에서 가장 힘이 세고 우직하며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동물이다. 그의 대단한 끈기와 일할 때 발휘하는 엄청난 힘은 동물농장에서 가장 훌륭한 동물로서 칭송받기 충분했다. 복서는 나폴레옹의 요구를 그 어떤 동물들보다 성실히 들어주고, 이러한 자신의 행동이 동물농장의 평화에 일조한다고 굳게 믿지만, 결국 늙고 힘이 빠져버려 버림받은 채 안락사 트럭에 실려 쓸쓸히 목숨을 잃고 만다. 조지 오웰 역시 복서를 권력 탓에 무너지고 마는 선량한 사회 구성원쯤으로 묘사했던 것 같다. 하지만 <동물농장> 속 복서는 ‘무지함’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인물이었다. 풍차를 건설하기 위해 숨통이 끊어질 듯한 고통을 참고 공동체에 헌신했던 복서지만, 그의 행동은 결코 동물농장에 이로웠다고 할 수 없다. 정말 복서가 동물농장을 위하고자 했다면, 단 한 번이라도 그 튼튼한 앞발을 돌을 옮기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풍차를 무너뜨리고 나폴레옹으로부터 약한 동물들을 지켜내며 공동체를 올바른 길로 이끄는 데 사용했어야 했다. 우리는 이를 두고 복서의 도덕성을 논할 수는 없다. 그는 다만 무지했을 뿐이다. 애석하게도 무지함은 비도덕성보다 더욱 치명적일 때가 있다. 복서는 자신의 힘과 행동이 사회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는지 알지 못했다. 복서의 쓸쓸한 죽음에는 올바른 지식과 교육, 그리고 사회 흐름에 대한 이해 없이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나갈 수 없다는 사실이 담겨있다.

그런가 하면 사회의 흐름이 잘못되었음을 알면서도 현실에 수긍하는 인물도 있다. 무엇이 옳은 길인지 알고 있지만, 변화를 위한 그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벤저민은 내가 생각하는 현시대의 최악의 인물이다. 풍차를 만들 때 어떠한 열의도 보이지 않고, 강압적인 분위기의 회의에서 단 한 번도 자신의 의견을 표명하지 않는 모습은 벤저민을 마치 권력의 부당함에 일조하지 않은 중립적인 인물처럼 보이게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글자를 아는 몇 안 되는 동물 중 하나였던 그는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있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공동체를 위한 것인지 뚜렷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지한 동물들에게 사실을 설명해주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했다. 나폴레옹이나 스컬러 만큼이나 동물농장의 몰락에 일조했다고 할 수 있겠다.

침묵과 관망은 어쩌면 악에 가담하는 것보다 사회를 더욱 후퇴하게 만드는 일일지도 모른다. 벤저민은 무지한 것보다 더 해로운 것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라는 나의 신념을 더욱 확고히 하게 해주었던 인물이다.

동물농장을 읽는 내내, 나폴레옹과 아홉 마리 개 그리고 스컬러보다 부패한 사회를 더욱 견고히 하는 인물은 복서와 벤저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끝에는 ‘기억하거나 적어도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라는 문장이 더욱 모호하게 들리기까지 했다. 정말 동물농장의 동물들은 무지와 무관심 때문에 그 기억이 확실치 않다고 느낀 것일까. 혹은 분명 기억하고 있지만, 권력의 두려움 때문에 기억한다는 사실을 왜곡하고 싶은 것이었을까. 어느 쪽이든 그 사회는 후퇴한 그 모습 그대로 멈춰버렸다는 것 하나는 분명하다. 매스 미디어가 토해내는 방대한 정보들 속에서, 기억과 사실은 쉽게 조작되고 변질된다. 변화의 주역인 우리는 이러한 위협 속에서 세상의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바로잡을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끊임없이 올바른 사실과 지식에 목말라야 하고, 틀린 것을 틀리다 말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내 생각’이 정말 나에게서 비롯된 것인지 항상 의구심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그 권력을 만들어나가는 사람이지는 않은지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세상을 지금보다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동물농장에 갇힌 동물이 되지 않도록 멈추지 않고 발버둥 쳐야 할 것이다.

<제6회 CNU 리드미^{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장려상)>

도서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저자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제목	일상의 협상, 헤아림의 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언가를 구하고 얻으며 살아간다. 그 무언가는 형태가 있는 물건이나 도구일 수도 있고, 형태가 없는 기술, 마음, 가치가 될 수도 있다. 또한 그 무언가는 나와 다른 사람일 수도 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할 때,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서로 얻고 구하는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그 얻고 구하는 과정은 바로 이 책의 핵심 키워드인 ‘협상’에서부터 나온다. 이 책은 이렇게 서로 연결된 사회 안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모든 얻고 구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하면 ‘잘’ 협상할 수 있을지 알려준다. 또한 원래 협상이라는 단어의 어감에서 느껴지는 차갑고 딱딱한, 사무적인 상황에서의 협상이 아닌, 일상에서 녹아든 협상의 평범함을 알 수 있다. 책은 크게 두 개의 큰 파트로 나의 이목을 끌었는데, 첫 파트에서는 내 생각의 틀을 많이 깨주었다. 사실 사람은 각자 살아온 환경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기에 그 환경과 다른 상황을 겪는 것을 다소 꺼리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에 타인을 진심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고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협상은 그저 상대와 나의 목적과 목표를 충족하는 부분에서 서로가 승낙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 생각했지만, 협상에서도 우선적으로 이러한 타인의 목적과 마음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에 나온 예화 중 스치듯이 지나간 예화 두 가지가 내 마음에 많이 남는다. 고장난 트럭으로 인해 복잡해진 차선에서 양보하지 않고 경적만 울려대는 택시 운전수에게, ‘운전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먼저 길을 열어달라’ 부탁하는 다이아몬드교수의 말이 바로 그것이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도 교통정리라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는, 무엇보다도 가장 밑바탕에 상대에 대한 존중이 녹아있다는 것이 참 인간적이고 따스한 협상이라고 생각했다. 두 번째 예화는 코카 대신 바나나를 재배하기로 협상에 성공한 볼리비아 농부들의 이야기였다. 코카를 재배하는 100명의 농부를 설득시키는 것과 볼리비아라는 문화, 환경적 차이가 주는 부담, 그리고 영어를 쓸 수 없는 농부들과 협상하는 것은 매우 난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다이아몬드교수는 그러한 ‘다양성’을 협상의 무기로 이용했다. 농부와 자신의 공통점, 즉 가정을 위해 일하는 것을 내세우며 그들의 마음을 열었고 통역사와 함께 합의내용의 모든 부분에 농부들이 그들의 의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놀라운 것은 그 계약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다이아몬드교수는 다양한 바나나 재배 프로젝트를 개설했고, 신뢰할만한 은행에 농부들을 위한 기업용 계좌를 만들어 그들이 안정적으로 수입을 관리할 수 있게 지원해주기도 했다. 그 결과 바나나 재배 프로젝트에 3000명의 농부들이 참여했다. 도중에 상품인 바나나가	

이동 중 손상되어 프로젝트가 주춤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그 또한 정치계와 언론계의 도움을 받아 바나나를 수송할 수 있는 공항이 개방되었고 이후 좋은 설비시설들이 추가로 지원되며 이 바나나 상품은 브랜드화 되었다. 볼리비아 농부와 다이아몬드교수는 전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공통점이라곤 없어 보이는 상황에서 이렇게 국가적인, 다양한 연대가 이루어졌고 그 시작은 바로 ‘공통점 찾기’였다.

사실 책의 대부분의 예화들이 지극히 일상적이어서 더 믿음이 갔다. 일상에서 내가 마주하는 그 모든 상황은 협상의 순간이었음을 인식하게 된 계기였다. 또한 배려와 이해의 마음,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협상의 가장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순한 획득이 아닌 서로에게 win win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상대에 대한 ‘헤아림’이 있는 협상에서 온다는 것임을.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루어진 파트 1은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을 분석적으로 파악하여 배려하는 전략, 상대방과 감정을 맞추는 것의 중요성, 다양한 의견과 문화차이를 고려하여 역이용하는 방법, 협상의 순서 등 협상의 거름과 같은 내용이었다. 하지만 파트 1편에서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협상의 가장 큰 첫걸음은 ‘진정성있는 헤아림’이 아닐까. 그리고 그 헤아림에 있어서 내 자신의 모습을 헤아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한다.

두 번째 파트에서는 다양한 협상의 상황과 상황에 맞는 협상의 팁을 적용하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다. 나의 일상에서, 나의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제시되어 상황을 상상하며 읽었다. 취업 면접 상황에서도, 물건을 싸게 구입하고 싶을 때도, 아이들을 달랠 때도, 받고 싶은 혜택을 얻을 때에도. 다양한 상황들에 처해있는 사람들의 예시를 통해 나는 나의 상황에서 어떤 대답을 해야할지 생각해볼 수 있었다. 특히 상대의 머릿속을 그려본다는 것이 파트 1에서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중첩되어 맴돌았다. 원하는 것을 얻으려면 원하는 것을 쥐고있는 상대의 마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을 체화하는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럼에도 이 책을 읽으며 이것을 머리로만 이해하기보다 내가 마주한 상황에 잘 녹여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또한 모든 협상의 분위기는 원활한 의사소통이 책임진다는 것도 동의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미숙하기만 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상대를 감정적으로 더 많이 대했던, 그래서 후회했던 일도 떠올랐다. 또한 비언어적인 작은 신호를 캐치하는 세심함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단호함이 잘 녹아있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진정한 무형의 가치’라는 문구를 파트 2를 읽으며 자주 보았는데, 협상 너머의 협상을 바라보라는 말로 인식되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나무보다 다 보이지 않는 숲 전체를 보아야 할 때를 알려주는 것 같았다. 목적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목적을 알아야함도 있지만 그 주변의 다른 것들을 바라볼 줄 아는 힘도 있어야함을 깨닫는다. 그것 역시 ‘헤아림’이다. 또한 그 주변의 것, 너머의 것을 캐치하는 헤아림의 힘은 다양한 협상의 시도와 경험 끝에 나오는 것이리라. 그러나 또한 책을 읽으며 때로는 힘을 빼는 것, 내려놓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모든 것을

다 얻어가는 것은 이기적이라고 생각한다. 상대와 나의 협상은 모든 것을 상대로부터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과 너의 것을 서로 내어주는 것이기에, 상대의 것을 다치게 하지 않으면서도 내가 목적으로 한 것만을 최대로 달성하는 것, 그것에서 욕심은 그쳐야한다는 것을 느꼈다. 파트 2에서 읽었던 다양한 상황을 내가 마주했을 때, 내가 취하는 행동이 이 책을 통해 얻은 지식을 체화한 행동이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사회적 전략 중 하나인 ‘협상’을 일상적인 ‘생활의 힘’으로 느낄 수 있게 해준 이 책을 만난 것이 감사하다. 기계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적절한 제시가 있어서 더욱 도움이 되었다. 잘 구하고 잘 얻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는 요즘 사회에서 더욱 빛을 발할 것 같은 책이었다. 협상도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것이다. 상대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고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협상의 품격을 지키는 동시에 협상의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한다.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적절한 상황에 어울리는 태도와 행동으로 기본을 지키는 것, 차이를 인정하고 그 차이로부터 또 다른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것, 긍정적인 마인드로 임하는 것,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가치를 볼 줄 아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구하고 얻는 과정 속에 녹아들어 있다면, 성공적인 협상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삶에서 마주할 일상적인 협상의 순간들에 적극적으로 헤아리고 고민하는 내가 될 수 있길.

<제6회 CNU 리드미 *Readme 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장려상)>

도서명	맹자
저자	맹자
제목	동양 현대철학이 익숙하지 않은 이유
동양 현대철학이 낯선 이유는 그들이 2500년 동안 하나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이었다. 철학과에 입학하여 3년간 많은 사상가의 생각과 논리를 다양하게 살펴봄으로써 이들의 생각을 엿보는 시간을 가졌다. 어느 정도 이들의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게 되자 문득 궁금증이 하나 생겼다. ‘왜 동양 현대철학은 없는 걸까?’ 우리는 흔히 ‘현대철학’을 이야기할 때 헤겔, 쇼펜하우어, 야스퍼스와 같은 서양 철학자들을 떠올린다. 동양 철학자를 떠올리기로는 낯설고 현대 동양을 관통하는 철학을 찾기엔 내가 아직 부족했다. 나는 한동안, 이 질문에 사로 잡혀있었지만 명쾌한 답을 찾기란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전공 서적, 논문, 인터넷이 아닌 『맹자』에서 찾을 수 있었다. 『맹자』는 유교 사상가이자 정치가인 맹자의 대화를 글로 옮겨놓은 책이다. 내가 전공수업에서 이론적으로 접한 것과 달리 『맹자』에는 정치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담고 있었다. 책은 총 14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편은 연속적이기 때문에 떨어뜨려 놓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다. 우선 제1편은 양나라의 혜왕과의 대화로 시작한다. 이 1편에서 다루는 내용이 맹자의 핵심사상을 관통한다고 생각하였다. 맹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 이익추구가 아닌, 사랑(仁)과 정의(義)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백성과 함께 더불어 즐기고, 무력이나 권력이 아닌 덕으로 백성들을 교화하여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맹자의 인의(仁義)와 여민주의, 왕도정치이다. 3편에서는 대인의 조건인 부동심과 호연지기를 강조하는데 맹자의 유교적 사상을 ‘마음’의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었다. 호연지기는 크고 광대한 기운이며 이것은 내면의 인과 의를 통해 가질 수 있다. 마치 우리가 자신에게 부끄럼 없이 사랑하고 정의롭다면 언제 어디서나 당당할 수 있는 것과 같다. 왕 앞에서도, 명예와 돈을 모두 가진 사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는 스스로 확신이 찬 사람의 기운이다. 4편과 5편은 주로 맹자의 현실 정치 경험을 담고 있고 이후 7편까지는 왕도정치를 위한 제도와 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8편부터 10편까지는 학자이자 권위를 가진 선비 혹은 대인에 대한 존재를 이야기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다양한 조언을 담고 있었다. 11편은 맹자의 인간 철학에 관한 이야기이다. 맹자는 인간은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	

지고 태어나기에 마음을 보존하고 기르는 방법을 말해준다. 앞서 맹자가 주장한 왕도정치와 여민주의, 그리고 상호공경하는 군신 관계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간은 누구나 인을 가지고 있기에 의로울 수 있고, 덕을 행할 수 있다. 따라서 백성들을 무력과 엄격한 법이 아닌 사랑과 정의로 다스릴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논리적이고 탄탄한 전개에 놀라웠다. 지금까지 서양철학만이 논리와 가깝다고 생각하였지만, 동양철학도 그에 못지않은 주장과 논리를 가지고 있었다. 이후 14편까지는 앞선 내용을 집대성한 편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맹자의 핵심사상인 인과의, 덕으로 이루어지는 정치의 방법적 내용 들을 담고 있었다. 즉 맹자는 모든 인간이 인과 의를 공유하며 함께 더불어 사는 여민의 세계, 소통의 정치라는 문명정치의 기초를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 SBS 드라마 ‘라켓 소년단’을 보았다. 중학생 베드민턴부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인데 굉장히 인상 깊었던 코치 선생님의 대사가 있었다. ‘사실은, 그 이후에도 기회를 준 곳이 있었는데, 내가 준비가 안 됐어. 1등 2등이 아닌 평범한 선수는 의미 없다고 생각해서 다 포기했거든. 우찬이는 선생님 같은 실수를 안 했으면 좋겠어. 열심히 하면 기회가 한 번쯤 올 거야. 단, 그 기회를 잡을 준비가 돼 있어야지.’ 『맹자』 진심 상편의 머리말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있다. ‘자기 마음을 다하면 사람의 본성을 깨닫는다. 사람의 본성을 깨달으면 하늘을 발견하리라. 자기 마음을 보존하고 사람의 본성을 기르는 것이 하늘을 섬기는 일이다. 일찍 죽든 오래 살든 마음에 두지 않고, 몸을 닦으며 천명을 기다리는 것이 소명을 세우는 길이다.’ 주어진 재능과 배경은 극복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기회는 한 번쯤 주어지며 그 기회를 잡기 위해 평소 노력해야 한다는 2021년의 드라마와 B.C 500년 전에 살았던 맹자의 말이 일맥상통하고 있다. 현대 동양철학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옆에 있으며 2500년 전에도 우리 옆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맹자를 직접 읽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 맹자는 자신의 정치철학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정치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삶이 들어있었다. 올바른 정치는 곧 우리의 올바른 삶과 직결된다.

우리는 누구나 현재를 현명하게 살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다. 잘못을 스스로에게서 찾으려 때에 맞추어 행동하고 처신하며 베풀고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건 지금의 나도, 지금 내 옆에 앉은 초면의 사람도 알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잊고 살아간다. 누구나 이 말에 끄덕임을 표하지만,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찾기 힘들고 되새기지 않으면 누구나 잊는다. 『맹자』는 우리가 잊은 그 명백한 사실을 복기시키고 확신에 도움을 준다. 나는 맹자의 말대로 누구나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어제의 뉴스를 보기만 해도 그

확신에 의문을 품게 된다.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내놓는 정치인들, 남의 것을 빼앗고 괴롭히는 사람들, 서로를 미워하는 사람들. 우리는 현재 다양한 갈등과 문제 상황에 놓여있다. 나는 이러한 문제 상황에 관심을 가지면 분명히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사람들이 모두 사랑과 배려를 가진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 정치적 능력보다 그 사람의 행동과 말의 진정성과 도덕성을 우선 하여 투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내가 이러한 의견을 주장할 때마다 ‘이상주의자’ 혹은 조금 융통성이 없고, 현실 사회에서 살아가기 힘들 것 같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나는 사람들의 이러한 반응에 스스로 작아지고 위축되고는 하였다. ‘옳지 않은 행위는 하지 않으며 사람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대하면 정말 나는 많은 상처를 받을까?’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나에게 맹자는 흔들리지 않는 마음과 확신을 주었다. 잘못된 것은 즉시 돌이키고, 상대의 마음에 함께하고 세상의 권위와 말에 흔들리지 말 것을 맹자는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지혜가 있어도 기세를 타는 것만 못하고 비록 호미가 있다고 해도 때를 기다리는 것만 못하다’ 내가 맹자의 이 말을 잊을 때 그때 나는 비로소 이상주의자이자 현실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때와 상황에 맞추어 행동하고 신념을 가지되 적절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지식보다 정보에 집중하는 오늘날이 우리가 맹자를 읽을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제6회 CNU 리드미^{Readme}_{Leadme} 고전 독후감 공모전(장려상)>

도서명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저자	스튜어트 다이아몬드
제목	소통 속 피어나는 가치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란 물음은 나의 흥미를 끌기에 충분했다. 원하는 것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모두가 간절하게 원하는 것 아닌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원했고, 책 한 권에 이 해답이 모두 담겨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책장을 넘겼다. 오래전부터, 사유재산이 생겨난 청동기 시절부터 사람들은 타인보다 더 많이 갖기를 원했고, 많은 소유가 곧 지위로 이어졌다. 현대에 들어와서도 많은 소유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보력은 물론, 정신적인 것까지 얻기를 원한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더 고도화되었다. 나 또한, 사회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서 원하는 것이 하나둘 늘어나고 있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저자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협상을 해야 한다고 말한다. 인생은 협상의 연속이다. 삶을 살아가는데 중요한 협상. 훌륭한 협상가가 되는 방법을 알려준다. 회사와 회사 간의 큰 거래만이 협상이 아니다. 일상에서 지인들과 점심 메뉴를 정하는 것 역시 협상이다. 협상은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이다. 고로, 세상을 살아가는데 협상 없는 삶을 꿈꾸기란 쉽지 않다. 그렇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협상에는 무엇이 중요할까? 저자는 나와 상호작용하는 상대방에게 초점을 맞췄다. 협상의 간단한 모델을 그려본다면, 자기 자신과, 나와 소통할 상대방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우리는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는다. 사람은 감정이 있기에 이 감정이 중요하다. 놀랍게도 협상을 성공으로 이끈 요인은 내용보다도 절차이며, 절차보다도 사람이다. 즉, 사람 간의 좋은 관계는 곧 좋은 결과를 만들고, 좋은 결과란 곧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나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특별한 비법이 있으리라 생각했다. 원하는 것을 얻는 방법은 문자 그대로는 쉬워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개념이 간단하다고 해서 실생활에서 진정한 협상가로 거듭나는 일도 쉬울까? 다시 그 답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을 때, 그 답은 “아니오”였다. 사람의 성향이 다 다르듯이, 그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 역시 다양하다. 가치가 다르므로 가치 교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의사소통을 통해 서로의 가치를 교환할 수 있다. 결국은,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끊임없이 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손에 넣는 방법이다. 나는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을 이렇게 결론 내리	

고 싶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중요하다. 모든 것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말을 나 역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것 말고도 저자가 말한 것 중에 삶을 살아가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있었다. 나도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나 그 관계가 좋을 수만은 없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갈등이라는 풀어나가야 할 숙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나는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갈등의 실마리를 풀어나갈지 어려웠다. 그저 내가 한발 양보하여 잡음 없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원하는 것은 점점 더 멀어져만 갔다.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것은 갈등을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다. ‘나의 인식은 어떠한지, 상대방의 인식은 어떠한지, 둘 사이의 인식 차이가 무엇인지, 인식의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네 가지의 물음에 차분히 답을 내려가다 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고 한다. 나는 이 물음을 듣고 그전에 겪었던 갈등 상황에 대해 차분히 앉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갈등을 겪었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는가? 갈등 상황을 빠르게 무마시키기 위해 한발 물러선 기억이 대다수였다. 갈등을 겪었을 때 저자가 제시한 방법으로 해결했으면 어땠을까? 란 아쉬움도 남았다. 건강한 인간관계는 상대방에 대한 무조건적인 배려가 아니라, 서로의 다른 생각을 인식하고 꾸준히 소통하고자 하는 노력이 아닐까? 란 물음을 던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이제 나는 곧 4년간의 대학 생활을 그린 책에 결론을 내릴 시기를 앞두고 있다. 졸업 앞두고 있다. 학교 또한 사회를 배울 수 있는 사회화 기관이지만,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 역할을 해주어 관계를 맺는 것에 두려움이 없었다. 학교는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고, 실패해도 다시 일으켜 주는 곳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울타리를 넘어 보다 더 큰 세상을 향해 발을 내디딜 차례가 되었다. 더 큰 세상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더 큰 세상에는 지금보다도 여러 인간관계를 맺을 기회가 있을 것이다. 막 세상에 나가게 된 나는 어떻게 행동하면 좋을까? 항상 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원했지만, 명확한 해답을 내리지 못했다. 이 답은 아직도 치열하게 고민 중이고, 그 기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다. 하지만, 조금의 해답은 얻을 수 있었다. 인간관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향해 꾸준히 문을 두드리는 것. 이것이 내가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답변이었다. 가만히 원하는 것을 소망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는 없다. 협상 테이블에는 나와 상대방, 두 명이 존재한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갈수록 내가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 맞은편에 한 명만 설득하면 될 것이란 보장은 없다.

내 협상 테이블에는 둘 이상의 상대방이 존재할 것이다.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나의 욕구와 맞춰서 상대는 점점 늘어날 것이고, 나는 그들과 협상할 것이다. 내 협상 테이블은 점차 커져만 갈 것이다. 더 많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더 큰 세상에 나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한다. 나는 앞으로 간절히 원하고 협상하며 더욱더 성장할 것이다.

책장을 닫고 나는 “어떻게 원하는 것을 얻는가?” 란 물음에 답을 얻을 수 있었다.

“인간적인 소통” 이것이 내가 이 책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답이다. 이 책을 통해 이론을 배웠다면, 이제는 실천이다. 나는 이 답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다. 내가 내린 답이 완벽한 정답이 아니면 어떠한가? 나는 이 방법을 통해 현재보다 더 성장해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계속 부딪치고자 하는 건강한 외면과 인간적으로 타인을 생각하는 내면이 합쳐진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 있지 않을까? 나는 단단한 외면과 부드러운 내면을 가지고 사회를 향해 발을 내디딜 준비가 되어있다. 나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 원하고 한 뼘 더 성장해 있을 것이다.